그 사람 지금은

(4) 기세훈 초대 사법연수원장

"10년이상 실무 익힌뒤 판사 하는게 바람직"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너브실(廣谷)마을에는 호남 명문가를 대표하는 300년 넘은 고택이 있다.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13대 후손인 서봉(瑞峯)기세훈(93) 선생이 지켜온 집이다.

고봉이 누구인가. 16세기 석학 퇴계와 8년동안 주고받은 사단칠정(四端七情)논쟁으로 성리학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세계관과 새 정치를 꿈꿨던 호남학파의 수장이다. '개혁군주' 정조는 그의 고결한 학덕을 '빙심설월(氷心雪月)'에 비유하기도 했다.

고봉의 차종손인 기옹은 법조인이자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전남대 초대 법대학장, 초대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73년 개업 후에는 민권 변호에 힘써오다 지난해 은퇴했다.

바쁜 법조생활에도 지난 1991년에는 사재를 털어 '고봉학술원'을 개설했다. 그동안 학술지인 '전통과 현실'을 24권째 펴내고 학술회의도 열면서 고봉사상이 지닌 현재적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해왔다. 묻혀 있던 고봉의 학문적 업적을 되살리는 것은 후손으로서 의무였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날인가 선친께서 '이러다 가학(家學)이 끊겨 먹통집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여파

외압으로 서울고법원장 사표

안이 되겠다. 그래도 문집은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탄하시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술원을 열고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고봉의 '주자문론(朱子文錄)' 영인본을 일본 내각문고에서 입수해 보급하기도 했다. 의사인 두 아들도 힘을 보탰다.

취재팀이 기옹을 만난 곳은 서울시 신당동 시니어스타워. 8년 전부터 기옹 부부의 거처가 돼온 도심속 실버타운이다. 구순(九旬)을 훌쩍 넘긴 세월에도 꼿꼿함을 잃지 않은 그는 옛 선비의 모습 그대로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창씨개명을 거부해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도 판사에 임용되지 못했다. '불순한 사상을 가진 조선인(不逞鮮人)'라고 낙인찍혀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탄광 노동자로 징용될 뻔하기도 했다.

광복이 된 해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947년에는 광주지법 판사, 1949년에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차장검사 때는 여순사건의 와중에서 경찰과 갈등 때문에 좌익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총살당한 박찬길 검사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6·25 수습과정에서도 '관제공산당'으로 몰려 죽을 뻔한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지."

좌익 총지휘자로 지목된 장성 삼서의 칠순 노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했었다. 지역 인심과 풍속을 잘 살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다 보니 '역시 기판사'라는 소문이 퍼졌다.

국립 전남대 건립과 법과대학 창설에도 기여했다. "1952년 광주향교에서 운영하던 사립 대성대학에서 시·도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과 형법 등에 대해 처음 강의하다

약 력

- ▲1914년 4월 21일 광주 광산 출생
-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고등문관시험사법과 합격
- ▲광주지법 판사·광주지검 차장검사
- ▲전남대 법대 초대 학장·서울가정법원장
- ▲광주·서울고등법원장·초대 사법연수원장
- ▲변호사·고봉학술원 이사장, 청조·황조근정훈장

이 대학이 전남대 문리과대에 편입되자 학생들을 야간에 편입시켜 수료케했지요."

1954년 법과대학이 설치되면서 초대 학장을 맡아 6년여동안 강의했다. 광주고보 출신으로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건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학생들 가르치는데 힘쓰다보니 "연구할 시간이 없어" 다시 법조계로 회귀했다. 이후 청주지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광주고법원장(1968년), 서울고법원장 겸 초대 사법연수원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는 듯 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관으로 가는 코스'였던 서울고법원장 자리에서 사표를 낼 수 밖에 없었다. 1971년 사법권 독립을 요

지난 1968년 12월 3일 광주고등법원장으로 부임해 지역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있는 기세훈씨. 〈광주일보 자료사진〉

구하며 법관들이 일어났던 제1차 사법파동의 여파였다.

"민복기 대법원장이 어느날 부르더니 '기 원장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하길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국가재건 대열에 낄 수 없는 사람이랍디다'라고 하데요" 그것으로 끝이었다.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한 직후였다.

초대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만큼 현행 법조인 양성과 사법연수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지금 시스템으로 안된다. 법조 일원화가 이뤄진 미국처럼 자격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서 10~15년동안 법률지식과 실무를 익힌

"우리 역사 소홀히 하다보니

독도·동북공정 문제 빚어져"

뒤 판사로 진출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로스쿨로 가더라도 철학과 예술을 비롯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실무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기옹은 인터뷰 도중 국사 교육의 중요성을 세 번이나 역설했다. "지식인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소홀히 하다보니 독도나 동북공정 문제가 빚어진다"며 초등학교부터 국사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옹은 "판·검사로서, 교수로서, 변호사로서 소신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해온 데 대한 조상의 보살핌 덕분이 아니겠어요?"라며 웃는다.

광주 고택 뒤켠에는 납골당이 세워져 있다. 자신부터 죽으면 화장해서 들어갈 것이라 한다. 유가의 후손으로선 큰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여망은 '살아 있는 날까지 고봉의 학문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조만간 광주시도 방문해 고택과 고봉학술원 등의 공공적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광주선 철도

1929년 광주~담양~금지 철도공사

태평양전쟁 이후 철 부족으로 중단

담양 고서면 송강정에 다가서면 '쌍교'란 이름을 단 음식점들이 눈에 띈다. 정자 건너편 해곡리로 가는 길에는 증암(죽록)강에 쑥다리(艾橋)가 있었다. 이 다리 아래쪽에 1920년대 광주~담양간 철도교가 가설되고, 곁에 29번 국도에 유산교도 놓여 나란히 다리가 됐다.

1914년 개통된 호남선 송정리역과 광주 대인동을 연결하는 철도가 1922년 7월 완공되고, 12월에는 담양 백동리까지 연결됐다. 광주·담양역 20.9㎞ 사이에는 망월·장산·마항역이 있었고, 하루 6회 왕복 운행했다. 요금은 어른 35전, 학생 15전, 한달 통학생 5원 20전이었다.

담양에서 남원 금지까지 37.1㎞ 구간에 대한 철도는 1929년 건설계획이 확정되고, 1939년 11월 노반공사에 착수 했다. 전남·북을 잇고, 호남·전라선을 연결하는 철도로 담양 석현·금과·순창·대가·방동역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88 고속국도와 비슷한 이 노선은 태평양전쟁이 격화되자 병기제조에 따른 철 부족 탓으로 광주~담양간은 1944년 10월 말까지 모두 철거됐고, 담양~금지 원촌간은 중단됐다. 영산강과 섬진강에는 당시 건설했던 다리의 교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쌍다리가 바로 그 흔적이다.

향가마을 인근에 남아있는 광주선 철도의 교각

광주~담양~금지 간 일명 '광주선' 철도 건설은 광복 이후 재추진됐다. 1990년 발행된 담양군 마을지에 교통부 정임천의 제보내용을 보면 총 연장 65㎞, 공사비 11억원, 공사기간 3년, 교량 22개소, 터널 3개소, 역 9개소 등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1965년 7월 담양역 광장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이 공사는 일부 구간 노반공사를 추진했으나, 1969년 광주역을 외각인 중흥동 611번지로 옮긴 뒤, 그만 두고 말았다.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옥출산(玉出山·276m)에 오른다. 곡성군 옥과의 진산인 설산에서 북동쪽으로 20여리를 치달려 섬진강에 멈춰선 명산이다. 조선환여승람에 "군 남쪽 15리에 있다. 산위에 토성이 있었는데, 그곳을 뚫으면 모래알 같은 구슬이 있어 옛날 여기에서 구슬을 캤다고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예전에 금을 캤다는 '금굴'이란 지명이 전한다. 이 산 북편 도로가에는 무기염류와 광물질, 철분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약수터도 있다.

목을 축인 뒤, 조금만 동쪽으로 향하면 향가터널이 나타난다. 굴 어귀에 금년 1월 세운 긴급통행금지 안내판을 본다. 이 터널은 1942년 준공, 길이 380m, 폭 4.88m, 높이 4.4m이다. 우회 길을 따라 1㎞ 남짓을 재촉하니 도로가 멈추고 섬진강이 굽이돌고, 백사장이 펼쳐지고, 건너편 용소 바위 위 소나무에는 왜가리가 앉아있다. 근처에 10호 쯤 되는 향가마을과 매운탕집 사이로 철도 교각이 강에 서 있다.

2001년 세운 동네 회관건립비에 류정환은 마을 유래를 "옥출산과 순자강의 산진수회(山盡水回)처에 아담한 마을이 있으니 향가(香佳)다. 아마 명산에 영초백화(靈草百花)의 향기와 청강(淸江)에 영롱한 천태만상의 아름다움을 인용하여 명했을 것이다. 울타리도 싸리문도 없는 인심 좋고, 소박한 마을이다"라고 알린다. 산기슭 강가 동네 형세란 뜻인 '향(산)가'를 풍수덕담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원장